

'강한 경제' 전주시 기업유치 추진단 출범

발대식·간담회 갖고 기업유치 추진 방안 등 논의... 2026년까지 유망기업 120개사 유치 목표 총력전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과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업 유치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23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김인태 전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 지원기관과 경제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유치 추진단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는 23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김인태 전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 지원기관과 경제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유치 추진단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주시 기업유치 추진단 역할과 기업유치 추진전략에 대한 소개에 이어 2023년 활동계획과 기업유치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장 등 경제(기업)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유망기업 3개사와 투자 MOU 체결을 목표로 타깃기업 150개사를 발굴하여 전문 분야별 중점 타깃기업 2~3개사를 집중관리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유치 추진단은 단장인 김인태 전주 부시장과 경제산업국장, 4개 부서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국탄소산업진흥원·캠빅종합기술원 등 지원기관 대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메가노바이오활성소재혁신의료기술센터·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전주상공회의소장·이노비즈 전북지회장·

이들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2026년까지 유망기업 120개사 유치를 목표로 역량을 모아 집중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업용지의 토지이

용률을 높이고 산업단지 내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유도해 첨단업종을 집적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후 산업단 팔복동 전주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당시 주력 업종인 섬유, 화학, 제지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유류 공장부지가 없어 유망기업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노후산업단 활성화와 첨단업종 유치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은 "전주시는 제주도까지 관찰한 전라감영이 자리했던 자랑스러운 땅이었으며, 그 이유는 전주가 조선왕조의 뿌리였고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경제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유망 중견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단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양은경 기자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

5월 12일~6월 4일 한국·일본·프랑스 작가 원화전 등 진행

오는 5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한국과 일본,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진행되는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원화전 참여작가로 이수지 작가(한국)와 막스 뤼코스 작가(프랑스),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일본) 등 3인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화 전시에는 참여작가 3명의 원화 90여 점이 전시될 예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도 함께 곁들여진다.

참여작가 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수지 작가는 '거울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등 이미지의 힘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글 없는 그림책을 통해 그림책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준 작가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는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야기와 독자에 따라 다양한 일러스트 스타일을 선보이는 작가로, 일러스트 작업을 포함 32권의 그림책을 출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한 이번 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는 작가 3명의 강연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원화 전시 이외에도 △그림책 작가 및 편집자, 번역가 등 관계자 강연 △그림책 공연 및 체험 △북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올해는 경혜원·김상근·사이다·정승각·최향량·하수정·한태희 작가를 비롯한 그림책 작가들과 민찬기 그림책 공작소 대표, 김성미 디자이너, 박재연·신명호·최혜진 번역가가 참여해 그림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림책도서전에는 그림책의 주요 대상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한다. 그림책 작가 1인 극장에는 김미애·곽민수·유진·이예수 작가가 참여하며, 오는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그림책 작가 및 출판사 북마켓에서도 그림책 판매와 함께 작

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조아록 기자

안정적 보육환경 위해 부모급여 확대 지급

전주시 완산구, 만 0~1세 영아 가정 월 최대 70만원

완산구 관내 안정적인 보육환경 보강과 조성을 위해 행정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기존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는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을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와 현금(차액 18만6000원)으로 지급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이 차등 지원된다.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이 지원되는 아동수당도 지원된다.

가정 양육 시 시간단위로 단기 보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완산구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총 3개 시간제보육제공기관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 6~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1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20개 사업에 233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의 양육과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외 특 별활동비 등 필요 경비도 달마다 10만 원씩 지원된다. 그 외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급간식비, 0세반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부모급여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양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경찰서, 소년범 길라잡이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소년범 처분결정을 위한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가 23일 개최됐다.

김태형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장(전주 덕진경찰서장)은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재범 위험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소년범 3명 중 2명은 훈방, 1명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찰 위원인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자문 위원 2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방지와 건전한 정

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감경 사유를 심사해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한다.

여청계 학교전담팀은 청소년 비행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생활지원, 심리상담' 등 사회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경미 소년범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청소년 특성에 맞춰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범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완산구 관내 법인 사업장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년도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서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완산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및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완산구는 법인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한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기에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배출량조사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4월 한 달간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64곳을 대상으로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사업장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장 일반현황과 2022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과 폐수의 외부 이송된 양을 4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발암성 물질 등(415종)을 조사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고, 배출량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배출시설 없음, 조사대상 업종 아님, 화학물질 취급량 조사기준 미만)에도 공문을 받았다면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자료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1차 검증,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최종검증 후 12월 말에 조사 결과가 확정되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prt/main.do)'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아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